

주간기도정보

2025. 8. 12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백성에게 붙임이라”

광복 80주년, 한국교회에 주어진 통합과 미래 비전의 사명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



미래목회포럼이 지난 7일 ‘광복 80주년 성명서’에서 “우리 민족에게 광복은 단순히 연합국의 승리의 결과로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선조들의 피와 땀, 신념이 만들어 낸 자주독립의 쟁취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제의 지배로부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선조들의 자유민주 의식이 이루어낸 성과다. 그 성과 이면에는 자유민주 신념을 성경에서 찾으려는 기독교인 독립 운동가들의 역할이 지대했다. 이 같은 신념이 오늘의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되었다”고 했다.

또한 “이번 광복 80주년은 대한민국을 넘어 한국교회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민족의 근현대사에 교회의 역할은 참으로 지대했다. 해방 이후 6.25 전쟁을 겪으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한국교회의 역할을 과소평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97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산업의 발전과 국민들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신념에도 한국교회의 역할이 있었고 민주화 과정에서 수많은 고비 고비마다 우리사회의 자유민주주의 기틀을 다지는 일에도 한국교회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최근 한국교회는 우리 선조들이 기초를 닦아 놓았던 민족의 정체성과 신념을 확고히 하는 일에 소홀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신념을 확고히 하는 과정 중에 나타난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갈등과 대립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교회는 이런 갈등과 대립을 화해시키고 통합하는 일에 실패했다”며 “앞으로 한국교회가 민족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 시대적 사명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교회언론회는 광복 기념 논평에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주 벌판과 이역만리에서 조국 광복을 위해 살신성인(殺身成仁)한 분들을 기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 화합과 정치권의 상생, 바른 역사관이 필요하며, 지도자들은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부정과 불법, 부패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섭리와 국가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심의 뜻을 깨달아서, 이것이 자유대한민국과 한반도 가운데 널리 펼쳐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한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고 했다(출처: 기독일보 종합).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자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불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다니엘 7:27)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예레미야 24:7)

하나님,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으로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웠던 작은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광복과 건국을 이루고 주님을 섬기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성경적 신앙과 헌신으로 자유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던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갈등과 대립, 부정과 불의로 신음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라의 위세가 자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있고, 그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국교회로 깨어 일어나 이 땅에 주의 뜻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에게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사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분단된 남북이 통일되어 선교완성을 위해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따르기 가장 어려운 북한에서 올려드린 신앙 고백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원천이고,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은 우리의 힘입니다.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오픈도어선교회(Open Doors)가 북한 내 비밀 기독교인들로부터 받은 메시지들은 북한의 참혹한 현실과 동시에 깊은 신앙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서 예수를 따르는 일은 곧 감금과 사망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그러나 성도들의 메시지에는 희망과 복음에 대한 헌신이 담겨 있다.

메시지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여전히 ‘공산주의로 나아가자’는 구호를 외치지만, 주민들은 속으로 ‘공허함으로 나아가자’고 한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기독교인은 “강연과 모임 때마다 당국자들이 지도자를 위대한 스승이라며 찬양하지만, 모두가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전했다.

심각한 경제난은 북한 사회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 또 다른 지하교회 성도는 ‘고위층’조차 가난을 면치 못하며, 대다수 주민들이 땘감 부족으로 난방은 물론 취사까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증언했다. 겨울철 실내 온도는 바깥과 다를 바 없어, 주민들은 집 안에서도 외투와 담요에 의지해 생활하는 실정이다. 현지 소식통들은 영양실조로 인한 사망자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처럼 끊임없는 생존 투쟁,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계속되는 체제 선전 속에서도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한 성도는 “우리는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할 것이며, 진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다.

다른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십니다. 그분은 지속적으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십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여러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북한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 성도는 “나무에 뿌리가 필요하듯, 기독교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이를 통해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함이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중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경을 넘어온 북한 기독교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성도들은 선교회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자신을 돋는 이들의 얼굴을 본 적도, 목소리를 들은 적도, 이름을 읽은 적도 없지만,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계속 나아갈 힘을 준다고 고백했다.

한 비밀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걸면서도,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며, “형제자매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출처: 미국 오픈도어선교회, 기도24·365본부 종합).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사도행전 20:24)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브리서 11:6)

하나님, 성경을 통해 들었던 증인들의 고백과 같이 북한에서 은혜의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나의 형제자매 된 북한 성도들을 축복 하오니 매 순간 육체의 시련과 영적 도전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의 상급 되신 주님을 전부로 주옵소서. 생존을 위한 필요를 구하기보다 영혼을 살게하는 믿음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지하교회의 간구에 응답하사 모든 통로를 동원해 성경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북한의 다음세대가 사무엘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섬기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자라나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할 세대로 세워지게 하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선교사 자녀들 위한 ‘맞춤형 학습캠프’ 개최

한동대서 14개국 선교사 자녀 대상 진로·신앙·학업 통합 지원



14개국 24명의 선교사 자녀(MK)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캠프(이하 학습캠프)가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3주 동안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에서 개최됐다. 시에라리온, 이집트, 러시아, 코소보, 네팔, 스리랑카 등에서 참석한 이번 캠프에서는 다양한 학업 배경을 가진 선교사 자녀들에게 비전과 진로에 맞춘 개인 맞춤형 학습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비전과 진로 탐색, 소논문 작성을 위한 창의융합 프로젝트, 창의코딩 캠프, 기독교 세계관과 창조과학, 성교육과 중독예방, 대한민국 역사와 한국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대구 선교사 묘역, 경주 유적지 문화 탐방 등이 제공됐다.

선교사 부모를 따라 열악한 환경의 선교지에서 자라야 하는 자녀들이 겪는 아픔과 어려움은 매우 크다. 현지 학교에 가기도 쉽지 않고, 재정적으로 국제학교에 가기 쉽지 않은 경우 홈스쿨링을 하거나 미인가 학교에 다니게 돼 대학 진학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한동대학교 VIC초중등교육지원센터(센터장 제양규, 이하 VIC센터)는 그동안 개발해온 기독교 기반 초·중·고 프로그램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가장 필요한 선교사 자녀들에게 학습캠프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학습캠프에 참가하는 선교사 자녀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선교사 자녀들은 학습캠프를 통해 각자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진로 찾기를 가장 희망했고, 신앙 회복과 친구와의 교제, 부족한 학업 보충 등을 희망했다.

이번 학습캠프에 참가한 선교사 자녀들은 다양한 학습 배경을 지녔으며, 대부분 3년 또는 12년 특례입학으로 한국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 이들은 수능 대신 토익이 유리하고, 수준 높은 한국 수학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어가 서툰 경우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 공부가 필요하며, 한국 역사와 문화, 반기독교 사상에 대한 이해도 함께 길러야 한다.

이에 학습캠프에서는 성교육과 함께 중독 예방, 창조과학과 기독교 세계관 교육, 비전 발굴과 진로탐색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참가자들은 팀을 이루어 소논문을 작성하는 창의융합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AI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감각을 기르기 위한 코딩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VIC센터는 희망하는 선교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캠프 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습 멘토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200명에 가까운 선교사를 파송한 국내 큰 선교단체에서는 선교사 자녀 교육을 위해 VIC센터와 향후 협력 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제양규 교수는 “저출생으로 인해 국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선교사 등 재외국민 자녀들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한동대 VIC초·중등교육지원센터는 선교사 자녀들은 물론 국내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더욱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시편 78:1,4)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데살로니가후서 2:13-14)

하나님, 선교사 부모님을 따라 다양한 문화 속에서 지낸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학습캠프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능력을 선교사 부모와 다음세대 사역자들에게 부어 주사 주의 기이한 사적을 자녀들에게 전하게 하소서. 선교사 자녀들을 십자가 복음으로 만나 주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저들의 심령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반기독교 사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저들의 학업과 진로의 길이 언제나 말씀을 따르는 길 되게 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또한 부모님의 하나님, 부모님의 사명이 아닌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주님의 사명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의 군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